

SK케미칼, 에너지 절약 동탑산업훈장 수상

SK케미칼은 11월7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제30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에너지 유공자 포상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고유가를 극복하고 환경오염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SK케미칼은 울산공장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저탄소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린 플랜트(Green Plant)를 건설해 2003-07년 원유 환산 약 9만4136톤의 에너지를 절감해 23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SK케미칼은 바이오디젤, 폐목재의 에너지 자원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다져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의 경영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8/11/06>